

[오피니언]

테마칼럼

경제로 세상보기

기술로 세상보기

문화로 세상보기

정보·문화 세상



이상길

“

제작규모는 작더라도 지역의 독특함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면 광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또 다른 발전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

평생 땅을 지키며 우직하게 살아온 농부와 30년간의 세월을 함께 지낸 소 한 마리,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독립 영화 '워낭소리'가 300만 이상의 관객을 돌파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어서 용역 간徘徊의 이야기를 그린 독립영화 '뽕파리'가 무려 17개의 국제 영화제에 초청을 받고 현재까지 모두 2개의 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독립영화의 가능성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 5·18을 소재로 한 영화 '순지'가 최근 개봉되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금,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할 때에 감독 개인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로지 감독의 피와 땀, 정열 때문이라고 말 할 수 밖에 없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한 곳인 칸느에서 최근 다녀온 기회가 있었다. 칸느로 가자면 교통편이 불편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기로 1시간 40분 걸리면 도착하는 곳이 세계적인 휴양도시라는 니스, 그곳에서 자동차로 40분 달려야 겨우 도착하는 곳이 칸느다. 택시 값만 해도 100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19만 원 돈이 된다.

이렇게 먼 곳에서 열리는 행사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팔고 살 상품이 모여 있다는 것이다. 백화점이나 양판점은 기준의 동네 구멍가게보다 더 다양한 상품으로 고객들을 끌어 모은다. 게다가 상품 이외에 다양한 부대시설과 행사까지 동원, 손님맞이에 나선다. 칸느도 이와 같은 유치기념을 가

지고 있다. 판매자를 위해 시장을 마련해주고 구매자를 불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구매자는 초청 프로그램이나 최신 경향을 소개하는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끌어 모운다. 팔고 살 만한 물건이 있으면 어디서든 시장을 찾 수 있다. 아무리 멀다고 해도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것 이 현대 지구촌이다. 교통편의? 돈벌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 그 벽이 차버리는 바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영화를 비롯한 문화사업 시장은 커다란 먹을 거리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수출 효자상품은 반도체, 휴대폰, 조선으로 2004년 통계로 보면 이들의 시장 규모는 각각 약 2천200억 달러, 1천100억 달러, 786억 달러이다. 그런데 놀랄게도 전 세계 방송산업은 2천600억 달러로 반도체보다 크며 세계 영화산업의 규모는 약 750억 달러로 조선산업과 어깨를 견주고 있다.

올해 방송영상 산업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디지털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들자면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먼저 인터넷으로 송출하고 이후 방송이나 극장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써먹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시네마다. 디지털 시네마는 필름 등으로 활용한 영화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꾼 뒤 이 디지털 파일을 하드디스크나 위성 등을 통해 디지털 영상기(극장) 및 홈시어터(가정)와 이동용 단말기(개인)를 통

해 배급하는 영화를 말한다.

영화진흥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필름 영화를 전면적으로 디지털 영화로 전환할 경우 영화산업 전체에서 연간 243억3천100만 원의 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디지털로 효율적인 제작 시스템의 확립이 가능하고 필름 프린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위성망을 통하여 전 세계에 동시에 배급이 가능하다. 서버 등의 관련 산업도 발전하며 영화뿐만 아니라 스포츠, 공연 종류 등 다양한 내용을 극장에서도 즐길 수 있다. 국내 영화산업의 경우 기존 필름이 완전한 디지털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2020년까지 향후 총 1조748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방송영상 산업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매체에 공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위를 차지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최근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그리고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전자매체(e-세상)의 등장으로 인해 아시아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세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할 때 제작 규모는 비록 적더라도 지역의 독특함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면 광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또 다른 발전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종·고·칼·럼



흥숙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몸을 눕힐 바닥만 보인다. 둘이 늙어가는 것인가? 긴장도 되고 걱정도 앞선다.. 그러나 문득 그 행한 겨울을 지내고 봄이 씩을 퇴우려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할 것인가? 나의 몸도 자연의 일부라 이리도 불을 맞기 힘드니? 하고 생각하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묘하게도..

잘 지내 가다가도 우울해진다거나, 몸이 아프거나, 거슬리는 사람이나 생긴다거나 하면 먼저 긴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겠지? 나요즘 왜 이러

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느냐니라/

진리를 깨웠거나 못 깨웠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그 변화되는 이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깨친 사람은 주

기·고



김상원

장흥읍 담수의 균원은 가지산 99개 골짜기 물이 원천이 꽤 탐진강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보림사 터를 잡았던 원표대사의 예언은 "후대 이곳에서 발원된 물이 수많은 사람의 젖줄이 될 것이다"고 했다. 약금의 현실은 9개 시, 군민들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장흥은 인물(인재), 강진은 재물(경제)로 통한다. 고로 인재+재물=인재는 경제(재물)이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다.

본인이 장흥군과 강진군의 통합을 주

면 탐진강 르네상스가 미래 학군의 청사진을 그려 볼 것이다. 장흥읍과 강진읍 사이 탐진강 수변 워터 프린트와 테마별로 특화하게 조성하면 강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작은 푸른 언덕 공원이 될 것이고 보행자로와 자전거로를 같이 조성하면 건강 보드가 될 것이다.

특히 통합을 주장한 이유가 2005년 전국 재정자립도가 장흥군이 제일 끌었고 2006년에는 강진군이 제일 끌었이라는 데서 책을 찾는 것이다. 이 또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흥·강진군 통합은 시대적 요구다

장하고 나선 것이 지난 2007년 3월이다. 이로써 양군이 가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 걸쳐 토의를 한바 있다. 강진군에서는 28명이 구성돼 현재도 추진하고 있으나 장흥군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한 걸 차이? '변화를 변화로 받아들

이자'라고 한 생각 떠올린 것이 묘하게도

마음의 안정을 주다니.. 정말 묘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가 보다.

이러한 불변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이

치를 깨우쳐주신 원불교 소태산 스승님

께서 큰 깨달음을 널리 퍼신 날, 원불교

공동생일로 함께 경축하는 대각개교절

(大覺開節)이 4월 28일!

이 아름다운 4월에 변화의 이치를 자

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주신 원불교 소태산

스승님과 인연이 됨에 가슴깊이 감사를 드린다. <원불교 비아교당 보좌교무>

1914년 4월 1일 행정개혁 개편으로 보성군 응진면, 회천면이 장흥군에서 분리된 바 있다.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 100여 년에 가까운 순환기적 밤상이다.

왜 양군이 통합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양군의 재정적 고통이고 둘째는 양군민들의 생활고다.

최근 목포시·무안·신안군 통합설이

있고 여수·광양·순천시의 통합설이 수

면 위로 오르고 있다. 목포시는 적극적

이나 무안, 신안군은 소극적이다. 왜냐

하면 무안, 신안군이 목포시에 흡수 통

합되며 시장이며 광양시도 여수시로 흡

수통합되며 시장이며 광양시도 여수시로 흡